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김기현*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 니트(NEET)를 정의해 보고 규모를 추정해 보는 한편, 청년 니트(NEET)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년 니트(NEET)는 “지난 1주간 취업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 재학도 하지 않았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도 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 젊은이”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비교의 경우 비형식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 중인 경우도 청년 니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를 추정해본 결과, 156만 명으로 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학원, 직업훈련기관 통학 니트 포함)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청년 니트 비중(18.9%)은 평균(13.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실업상태의 청년 니트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의 청년 니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해 청년 니트의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청년 니트 중 취업 준비 중인 경우(①취업준비형)가 45.3%로 가장 높았고 휴식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경우(②휴식포기형)가 27.7%로 나타났으며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③진학준비형)가 7.0%, 가족을 돌보거나 가사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④돌봄가사형)가 5.0%,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⑤질병장애형)가 4.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016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니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인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분가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없을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 이하는 성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이나 부모 동거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 청년 니트(NEET), 청년 연령 정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족배경, 청년 정책

I. 들어가는 글

청년 고용문제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청년 고용 위기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진단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ILO, 2013). 2009년 경제위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청년 고용 위기가 확대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취업을 하는 과정과 결과가 불안정하고(precarious) 노동시장으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mismatch)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결과와 관련하여 불안정하고 원활하지 못한 이행 상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직무 불일치(job mismatch)이다. 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취업자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경우 과잉교육(over-education or over-qualification)이나 하향취업(downgrading employment)으로 불리는데 이는 Freeman(1976)의 저서(*Overeducated American*)가 1970년대 발간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대변하는 또 다른 지표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이다. 니트는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한다. 이는 1999년 영국(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이자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나 일본(厚生労働省, 2004)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를 거쳐 10대에서 20대를 포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안정성과 노동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청년 니트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청년 니트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에서 니트라는 정책 대상에 관한 정의가 여전히 논쟁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 현황을 살펴본 후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자 한다. 국제적인 논의는 OECD(2014, 2017)에서 교육(*Education at a Glance*)이나 사회(*Society at a Glance*), 고용(*Employment Outlook*) 등에 관한 공식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OECD에서 2017년도에 발간된 교육통계보고서의 청년 니트 분석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OECD, 2017).

청년 니트에 주목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의 특성이 다른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는 진단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고학력 국가로 청년 니트 역시 대졸 니트 비율이 높아 고졸 니트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상이한 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니트에 관한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19년간 중단조사(1998년~2016년)를 이어오고 있는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19차에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해 분석이 가능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2016년)를 활용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 니트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 청년 니트(NEET)에 대한 정의와 규모 추정

1. 청년 니트(NEET)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청년 니트는 개념 정의나 측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완성단계라기보다는 형성단계에 있는 주제이다. OECD에서 비교적 최근 들어 국제비교 결과(OECD, 2014)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진

히 비판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청년 니트 개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이 글에서는 어떤 개념과 정의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 니트의 개념을 제일 먼저 제기된 곳은 영국이다. 영국 총리 산하에 사회통합을 위한 위원회(the social exclusion unit)가 1999년에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취약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이 보고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는 10대들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니트에 관한 출발점이 10대 청소년이지 20대나 30대의 청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흔히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 1991-2002)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젊은 무업자(若年無業者)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김기현, 2005).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모추정을 공식적인 통계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발간하는 노동경제백서를 통해 공표하였다(厚生労働省, 2004). 이 백서에서 니트를 의미하는 젊은 무업자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연령이 15세-34세이며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니트의 연령 대상을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확장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점차 늦어져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한편, 30대 초반까지 정책 대상을 넓힌 것은 20대에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직한 후 다시 니트 상태에 놓이거나 한 번도 취업을 해보지 않고 30대까지 니트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니트 개념이 10대 청소년에서 20대 이상의 청년 연령집단으로 확장되면서 몇 가지 고민이 발생하였다. 특히 영국의 청소년 니트가 매우 동질적인 집단인데 비해 일본의 청년 니트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연령 대상을 넓히는 대신 니트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였다. 우선 일본의 청년 니트는 기혼자를 제외하였다. 기혼자를 제외한 것은 특히 여성으로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표 1> 청년 니트(NEET)에 대한 해외 정의

구분	설명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1999)	연령이 16-18세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았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
일본의 厚生労働省(2004)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연령이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젊은이
OECD(2014)	연령이 15-29세(혹은 15-19세, 15-24세)로 형식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

자료: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厚生労働省(2004), OECD(2014)

다음으로 일본 니트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제외하였다. 실업자를 니트에서 제외한 것은 전통적인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정의에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 니트가 새로운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개념이라면 기존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다른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OECD는 청년 니트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연령규정은 좁게, 대상규정은 넓게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OECD, 2014). 연령 규정은 일본과는 달리 2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통상 국제기구들에서 사용하는 청년(youth) 연령 규정(15-24세)보다 넓은 29세까지 니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정책대상은 18세에서 24세의 젊은이로 OECD 교육통계보고서 등에서 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30대 초반을 포함한 것과 차이를 보여주는데 한국, 일본, 중국과는 달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고 15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의 노동시장 정착기의 기준을 20대까지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OECD에서는 취업과 학업(post-secondary education, 곧,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공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포함)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니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 부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이나 가사에 종사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노동시장 진입에 차이를 두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업 및 훈련 문제이다. OECD에서는 학업 및 훈련 여부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국한해 측정하고 있다. 곧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니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훈련분야가 공식적으로 교육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니트 규모 추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본은 형식교육에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중등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제도화해 운영 중에 있다. 반면, 한국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일부가 형식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만 직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은 어떤 학위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형식교육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니트 통계를 OECD에 제공하고 이후 통계 수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공을 미루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훈련분야를 공식교육으로 다루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OECD에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제비교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통계를 정부에서 마련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절에서 이와 관련된 국내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청년 니트(NEET)에 대한 논의

국내에서 청년 니트 정의 문제는 논쟁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는 청년 니트에 관한 공

식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통계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1주일간 주된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청년 니트의 주요 대상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표 2> 청년 니트(NEET)에 대한 국내 정의

구분	연령	분석자료 및 기준
남제량(2006)	15~34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기혼자가 아닌 사람
금재호 외(2007)	15~2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자가 아닌 사람
채창균 외(2008)	15~2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정의 1: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응답자 - 정의 2: 정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 - 정의 3: 정의 2에다가 지난 1주일 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
박진희 외(2015)	15~34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응답자
김광석(2015)	15~34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닌 사람
이규용 외(2015)	15~2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자료 - 취업자, 일시휴직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자가 아닌 사람
김종욱(2017)	15~2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재학 학생, 입시학원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자,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 기혼자가 아닌 사람

자료: 남제량(2006),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 이규용·금재호·안주엽·윤자영·김기현·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2015), 김광석(2015), 김종욱(2017)

출처: 김기현(2015)의 <표 3>(p. 69)에서 다른 국내 정의를 추가해 수정·보완함.

남제량(2006)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니트의 규모 추정을 한 바 있는데 이 때 니트에 관한 정의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니트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니트를 추정하고 있는데 실업자와 기혼자는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거나 지난 1주 동

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구직 니트로 니트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서 노동부에서는 한국형 니트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을 위해 2007년에 수탁연구를 수행하였다(금재호·전용일·조준모, 2007).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정의와는 달리 혼인 여부에 따라 기혼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29세까지만 니트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의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실업자도 니트에 포함하고 있다.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은 보다 유연하게 세 가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의 1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니트로 보는 것이다. 이는 박진희, 김두순, 이재성(2015)이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다. 정의 2는 정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 3은 정의 2에다가 지난 1주일 간 주된 활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정의는 이 연구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의이지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ECD의 니트 정의보다 좁게 정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OECD와 마찬가지로 연령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니트에 관한 개념정의와 규모 추정(김광석, 2015; 이규용 외, 2015; 김종욱, 2017)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실업자를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니트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박진희 외(2015)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이루어진 연구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청년 상한 연령 정의는 29세와 34세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런데 청년을 성인기 이행기로 볼 때 이행기가 지연되고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 2,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청년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적으로 19.3세에서 29.5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곧 청년들 스스로 20대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법률이나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연령은 대다수가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굳이 청년 연령을 30대 초반까지 늘려 정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년의무고용제처럼 필요에 따라 법령에 정책대상 연령을 유연하게 정의한다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적절하다면 청년 연령 정의는 20대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두 번째로 청년 니트 정의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주부의 제외 여부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결혼여부나 가사 활동을 니트 개념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주부를 공식으로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본 내각부(內閣府)에서는 실업자와 함께 미혼으로 가사를 보조하는 여성(カジテツ)도 청년 니트에 포함하여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김기현, 2005).

이 글에서는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연령 규정을 15세에서 29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연령을 15-29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니트 대상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OECD의 정의(실업자 및 기혼자 포함)를 따르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노동패널조사 등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된 활동으로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자 한다. 비형식교육 형태로 학원 등에 통학 중인 경우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처럼 제외하였다. 다만, 국제비교의 경우 쟁점인 비형식학습 형태의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중인 자를 청년 니트에 포함하고 있는 OECD 통계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3. 한국 청년 니트(NEET) 정의와 규모 추정

여기에서는 청년 니트에 관한 국제 비교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OECD에서는 2000년부터 각 국가별로 니트의 규모를 추정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통계는 2008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국가별로 니트 규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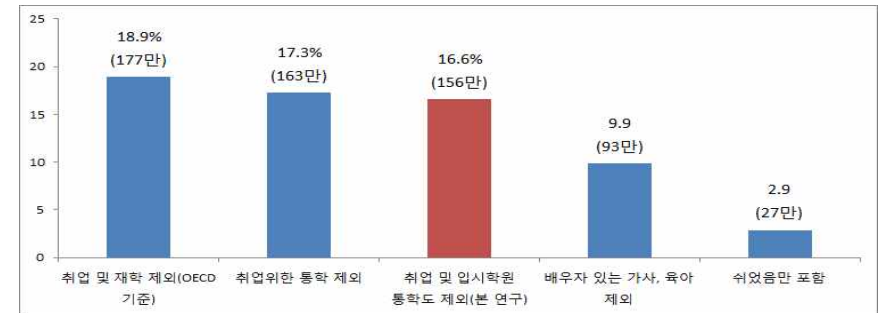
한국은 2013년 통계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OECD 평균(15.4%)보다 높은 수준인 18.5%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니트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청년 니트비율을 OECD 기준에 따라 추정해 보면, 1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OECD 주요 국가 청년 니트(NEET) 현황 비교(15~29세 기준,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2008	18.5	11.4	14.6	14.8	14.0	11.6	8.7	9.9	16.4	19.2	16.2	13.7
2009	19.0	12.2	16.9	15.7	15.6	11.6	11.0	12.0	22.3	21.2	16.8	15.4
2010	19.2	12.0	16.1	15.9	16.6	12.0	10.3	12.6	23.3	23.0	18.3	15.7
2011	18.8	11.7	15.9	15.5	16.4	11.0	9.1	11.8	24.0	23.2	21.8	15.7
2012	18.5	11.5	15.2	16.3	16.6	9.9	9.7	11.9	25.3	24.6	27.0	15.4
2013	18.1	10.8	16.0	15.6	16.3	9.7	9.4	12.3	27.2	26.1	28.5	15.6
2014	(17.8)	9.8	15.1	14.4	16.3	9.2	9.5	13.0	24.3	27.7	28.3	15.2
2015	(18.6)	-	14.4	13.7	17.2	8.6	9.1	14.3	22.8	27.4	26.2	14.6
2016	(18.9)	-	14.1	13.2	17.2	9.6	8.2	13.2	-	26.0	23.5	13.9

자료: OECD (2017),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24 September 2017). OECD Database(<https://data.oecd.org/>). 출처: 김기현(2015)의 <표 6>(p. 73)에서 2013년~2016년 결과를 추가해 수정·보완함. 한국은 2014년부터 OECD에 결과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OECD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추정된 결과(괄호표시)임.

국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청년 니트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6년 원자료를 이용해 비교해보자. OECD 기준으로 청년 니트는 18.9%이며 니트 규모를 추정해 보면, 177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서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제외할 경우 청년 니트는 17.3%로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입시,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제외하고 청년 니트를 추정해 보면 16.6%로 낮아진다. 일본 니트 개념을 기준으로 주부를 니트에서 제외할 경우 청년 니트는 9.9%로 낮아지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한 경우만 청년 니트로 볼 경우 2.9%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OECD에 요청한대로 니트에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니트 규모를 추정(16.6%)한다고 해도 OECD 평균(13.9%)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면 청년 니트에 대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 니트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 니트에 관한 공식통계를 하루빨리 확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원자료

[그림 1]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15-29세) 니트 정의별 규모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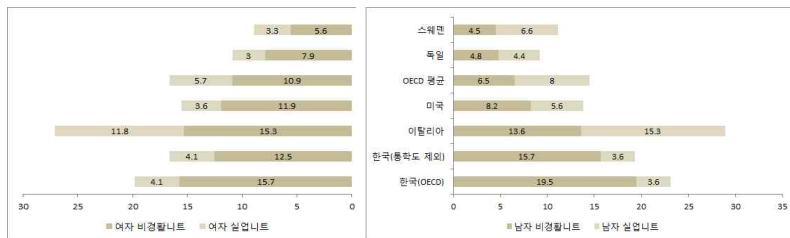
OECD의 2017년 교육통계보고서에서는 청년 니트 문제를 별도의 절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OECD, 2017).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결과가 제외되어 있는데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를 활용해 OECD 기준과 모든 형태의 통학을 제외한 결과를 포함해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고학력 국가이지만 대학 진학 이후 학교에 진학하는 선 취업 후 진학이나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이번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 중 재학 중인 경우는 OECD 평균 49.0%로 나타나 한국(44.5%)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청년(15-29세) 중 취업 중인 경우는 36.7%로 OECD 평균(35.8%)보다 약간 높고 취업도 학업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 니트는 18.9%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한 통학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러한 패턴에 그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청년 니트를 줄이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Table C5. p. 316.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원 자료. 한국의 통학 제외의 경우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은 학교 재학 중으로 분류함.

[그림 2]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5-29세) 니트 비중 비교

OECD에서는 청년 니트 중 핵심정책대상인 18세에서 24세의 경우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성별로 보면, OECD 평균 여성 청년 니트가 남성 청년 니트보다 많지만 우리나라는 남성 청년 니트의 비중이 더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유선(2017)은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남성 청년 니트는 증가한 반면, 여성 청년 니트는 감소해 결과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료: OECD(2017), *Educational at a Glance*. Figure C5.2 p. 308.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원자료. 한국의 통학 제외의 경우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통학은 학교 재학 중으로 분류함.

[그림 3] OECD 기준 주요국 2016년 청년(18-24세) 니트 성별 비교

다음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보면, OECD 평균보다 비경제활동상태의 청년 니트가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청년 고용지표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실업률은 낮은 대신 비경제활동인구는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OECD, 2017). 이 결과는 청년 니트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청년 니트의 세부적인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KLIPS를 통해 청년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KLIPS를 활용한 이유는 청년 니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청년 니트는 15세에서 29세로 취업자도, 재학생도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OECD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것은 비형식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를 니트에서 제외한 점이다.

<표 4> 노동패널조사(KLIPS)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전체(15~29세)
1차(1998)	5.6	27.9	38.1	23.7
2차(1999)	5.6	20.6	31.9	19.2
3차(2000)	4.6	20.5	32.6	19.5
4차(2001)	4.7	22.8	29.0	19.4
5차(2002)	6.0	25.4	26.2	19.7
6차(2003)	4.9	23.7	27.3	19.3
7차(2004)	4.9	24.4	26.6	19.1
8차(2005)	3.2	23.3	26.3	18.0
9차(2006)	2.8	21.7	25.3	16.9
10차(2007)	3.7	21.4	27.2	17.5
11차(2008)	3.7	21.2	24.6	16.1
12차(2009)	4.3	25.2	22.8	17.0
13차(2010)	5.6	23.3	22.9	16.7
14차(2011)	6.5	23.0	26.7	18.0
15차(2012)	6.1	20.2	20.4	15.1
16차(2013)	3.0	24.7	21.3	16.5
17차(2014)	5.2	22.7	24.2	18.1
18차(2015)	4.6	28.3	24.0	19.1
19차(2016)	3.8	25.9	29.9	20.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9년차 원자료, 종단면 가중치(2009년 이후 통합표본)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이규용 외(2015)의 <표 9-6>(p. 158)에서 18차(2015)와 19차(2016) 결과를 추가해 수정·보완함.

KLIPS를 통해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니트는 2016년 현재 20.3%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보다 3.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규용 외(2015)는 KLIPS를 이용해 청년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경찰조사가 KLIPS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니트 비율은

반대로 KLIPS가 경찰실업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LIPS가 경찰조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조사에 비해 1년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는 KLIPS가 경제활동상태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동시에 KLIPS는 패널조사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니트의 특성이나 상태 변화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KLIPS를 통해 청년 니트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청년 니트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니트 통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유럽연합은 청년 니트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Eurofound, 2012). 이는 청년 니트의 내부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니트의 유형은 크게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집단인 ①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집단인 ② 비구직 니트로 나누고 이를 보다 세분화해 5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5가지 청년 니트 유형은 ① 전통적인 실업자집단(the conventionally unemployed), ② 가사 및 가족 돌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니트가 된 집단(the unavailable), ③ 능력부족이나 의욕저하, 사회부적응 등을 이유로 니트가 된 집단(the disengaged), ④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인 집단(the opportunity-seekers), ⑤ 문화, 예술이나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니트가 된 집단(the voluntary NEETs) 등 5가지이다(Eurofound, 2012: 24). 이처럼 명확히 구분된 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찰조사에 해당하는 노동력조사(EU Labour Force Survey)를 제한적이나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 자료를 이용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곧 취업에 이를 예정인 취업준비 니트가 대략 절반(50.8%)을 차지하며 가사나 가족 돌봄 때문에 니트인 경우가 15.4%,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12.5%로 나타나고 있다(마스케리니, 2016). 한편, 일본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니트를 ① 비행형, ② 자신상실형, ③ 은둔형, ④ 자아실현 추구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강영배, 2005: 21)

국내에서도 청년 니트 유형 구분을 모색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는 청년 니트를 ① 구직 니트와 ② 비구직 니트로 크게 나눈 후 ①-A 가족노동형 니트(구직 무급 가족종사자+가사노동자), ①-B 청년 실업(전통적인 실업자개념), ②-C 함정형 니트(고시족, 공시족), ②-D 현실회피형 니트로 구분하였다. 다만,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구분에 따른 니트 규모를 추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주희진·주효진(2017)은 구직활동 여부와 취업의사 여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자발성 여부로 ① 구직형, ② 기회추구형, ③ 단절형, ④ 포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KLIPS자료를 이용해 유럽연합 등 국내외의 니트 유형을 참고해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취업준비형은 구직활동(실업자)을 하거나 통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준비 중인 집단이다. 두 번째로 진학준비형은 진학(재수생이나 학교복귀)을 준비 중인 집단이다. 이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고 재수생이 많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로 돌봄가사형

은 유럽연합의 두 번째 유형 중에서 가사나 가족 돌봄 때문에 니트에 포함된 집단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휴식포기형은 주된 활동을 ‘쉬었음’이라고 응답했거나 능력부족이나 의욕저하로 취업을 포기(비구직 이유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 등으로 응답한 경우)한 집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럽연합의 두 번째 유형 중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니트에 포함된 집단을 의미한다. 질병장애형은 지난 1주간 주요활동이 심신장애라고 응답했거나 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감각기관 장애 여부, 육체적 제약 여부)을 통해 파악하였다. 기타는 현재 KLIPS로 파악할 수 없는 자발적 니트이거나 군 입대, 결혼 준비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표 5> 인구학적 변수별 청년 니트(NEET) 비율 및 유형별 분포(KLIPS 2016, %)

구분	니트비율	니트 유형별 분포						
		취업준비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휴식포기형	질병장애형	기타	
전체	20.3	45.3	7.0	5.0	27.7	4.1	11.0	
성별	남	22.4	44.1	7.4	0.3	26.8	6.5	14.9
	녀	18.0	47.0	6.4	11.7	28.9	0.7	5.4
연령	15-19세	3.8	22.4	33.5	4.6	19.7	0.0	19.8
	20-24세	25.9	31.6	8.4	4.2	33.6	4.1	18.1
	25-29세	29.9	61.7	2.3	5.9	22.7	4.5	2.8
교육	고졸이하	16.2	22.9	12.9	4.1	33.6	10.3	16.2
	전문대	26.5	45.1	3.8	11.2	25.5	3.9	10.4
지역	대학교	20.5	58.7	5.4	1.9	25.4	0.5	8.2
	서울	24.8	43.2	7.9	8.2	23.1	3.8	13.9
혼인	광역시	22.7	60.0	9.2	0.6	24.9	2.9	2.5
	도	17.4	37.0	5.1	6.2	31.9	5.0	14.8
인	미혼	20.1	46.6	7.3	1.7	28.8	4.3	11.4
	기혼	29.5	13.3	0.0	86.7	0.0	0.0	0.0

주: 대학원은 표본수(4명)가 적어 대학교에 포함시킴.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년차 원자료, 중단면 가중치(통합표본)를 적용한 결과임.

KLIPS자료를 이용해 청년 니트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준비형이 45.3%로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휴식포기형이 27.7%, 진학준비형이 7.0%, 돌봄가사형이 5.0%, 질병장애형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각 유형별로 정책적인 접근은 달라지는데 휴식포기형이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며 돌봄가사형은 여성고용정책 측면에서 질병장애형은 장애인고용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풀기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취업준비형은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을 뿐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다양한 취업준비경험이 있는 집단들로 단계적으로 이들을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인구학적 변수별로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가사형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니트는 진학준비형이 가장 많고 20대 전반 니트는 휴식포기형이 가장 많다. 20대 후반

니트는 취업준비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연령별로 청년 니트를 푸는 방식이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졸자들의 청년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형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휴식포기형은 고졸 이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니트 비율이 가장 높고 광역시는 취업준비형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도지역에서 휴식포기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인 여부에 따라서 니트비율을 보면, 미혼보다는 기혼의 니트비율이 높는데 이는 여성으로 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혼 니트 중 돌봄가사형은 8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가족배경 변수별 청년 니트(NEET) 비율 및 유형별 분포(KLIPS 2016, %)

구분	니트비율	니트 유형별 분포					
		취업준비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휴식포기형	질병장애형	기타
전체	20.3	45.3	7.0	5.0	27.7	4.1	11.0
부모							
교육							
고졸 이하	25.3	44.9	6.4	6.1	29.2	3.2	10.3
전문대 이상	13.6	48.0	9.3	1.9	23.2	3.8	13.7
부							
직업							
서비스	12.6	54.4	5.5	2.3	20.6	8.3	9.0
정신노동	13.7	42.4	17.7	0.0	37.2	1.5	1.2
자영업	23.9	54.9	4.0	6.9	22.0	0.0	12.2
숙련육체노동	34.9	39.8	3.4	1.6	12.7	10.6	31.8
미숙련육체노동	25.8	48.9	9.2	6.6	26.8	0.0	8.5
농림어업	20.5	39.4	7.0	6.3	24.5	3.1	13.2
가구							
소득							
3999만원 이하	26.0	39.7	6.6	7.0	32.3	2.7	11.7
4000-7999만	17.1	47.3	8.4	5.2	22.1	3.2	13.8
8000만원 이상	14.0	66.4	3.4	0.9	22.2	0.0	7.1
부모							
동거	20.9	47.2	7.1	3.3	27.1	4.5	10.8
분가	16.3	24.1	5.6	23.8	33.6	0.0	12.8

주: 부모교육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기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 값이 없을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 값을 적용한 결과임. 부모 동거에서 사별의 경우 분가에 포함시킴. 가구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년차 원자료 및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중단면 가중치(통합 표본)를 적용한 결과임.

이어서 가족배경별로 청년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우선 부모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니트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 니트 유형별로 볼 때 취업준비형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부의 직업을 유렵의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EGP 계급법주로 구분해 살펴보면, 정신노동 상층에서 육체노동 하층으로 갈수록 니트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취업준비형도 정신노동 상층일수록 높아 부모교육수준과는 달리 니트 비율의 추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KLIPS 가구조사에서 전년도 가구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해 니트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년도 가구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때 니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니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배경에 따라서 청년들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니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부모와 동거할 경우 분가한 경우보다 니트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립한 청년일수록 청년 니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7> 노동시장 및 취업준비 변수별 청년 니트(NEET) 비율 및 유형별 분포(KLIPS 2016, %)

구분	니트비율	니트 유형별 분포						
		취업준비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휴식포기형	질병장애형	기타	
전체	20.3	45.3	7.0	5.0	27.7	4.1	11.0	
취업								
없음	22.0	42.5	7.9	4.7	28.7	4.7	11.5	
있음	13.5	63.9	1.1	7.4	20.5	0.0	7.1	
혼련								
없음	20.5	44.4	7.2	5.2	27.8	4.2	11.2	
있음	16.0	78.0	0.0	0.0	22.0	0.0	0.0	
자격								
없음	20.1	43.9	7.2	5.2	28.3	4.2	11.3	
중	있음	38.7	96.6	0.0	0.0	3.4	0.0	0.0
정부								
받지 않음	18.5	33.1	10.0	6.7	32.9	6.0	11.4	
지원	받음	25.4	68.6	1.3	1.9	17.6	0.4	10.1

주: 정부 지원은 청년층 고용대책 중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관제도,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 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창업 지원 중 한 가지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년차 원자료 및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중단면 가중치(통합 표본)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및 취업준비 경험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을 비교해 보자. 이 때 취업 여부는 KLIPS의 2016년(19년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활용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취업 여부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씩 최소 2개월 이상 계속해 취업했는지 여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기준인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보다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하고 취업경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당 평균 15시간 2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 니트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절반이나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휴식포기형의 비율이 28.7%로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20.5%)보다 높다. 이는 취업 유경험자 중에서 구직 포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도 청년 니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 반대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청년고용대책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 미취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니트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 취업준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 본 상태에서 정부지원 여부가 니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고용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청년 니트(NEET) 결정요인

1. 청년 니트(NEET)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청년 니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처음 이 개념을 제기한 영국(Bynner & Parsons, 2002; Furlong, 2006; Yates, et. al, 2011)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일본(Inui, 2005), 호주(Tamesberger & Bacher, 2014), 대만(Chen, 2011), 멕시코(Benjet, et. al, 2012)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이 대체로 초기에 주목한 결정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Bynner & Parsons, 2002). 첫 번째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얻은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이 니트 상태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취업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곧, 높은 학업성취도나 교육수준은 니트 상태에 빠질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배경으로 부모의 교육이나 직업, 그리고 소득수준이 니트 상태에 빠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Bynner & Parsons(2002)는 영국의 패널조사(BCS70: the 1970 British Birth Cohort Study) 자료를 활용해 청년 니트 결정요인으로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통해 교육수준이나 인지 능력과 가족배경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16세 때 최소한의 학력(Ordinary Level or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s)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지능력은 BCS70조사에서 10세 때 실시한 읽기 및 수학 능력 평가 결과(Edinburgh Reading Test, Friendly Maths Test)를 활용하였다. 가족배경은 먼저 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해 아버지의 직업(없을 경우 어머니의 직업)을 사회계급(Registrar General Social Class Scale) 범주로 전환해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서적인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세 때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지, 책 읽기를 해주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밖에 10세 때 자녀의 학교급식 지원을 받았는지, 연금이나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도 분석 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10세 때의 읽기 및 수학 능력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16세 때 최소한의 학력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사회계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의 책 읽기 여부나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 등은 니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사회계급 변수와 관련하여 Yates, Harris, Sabates & Staff(2011)도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계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이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호주의 청년 니트 결정요인을 분석한 Tamesberger & Bacher(2014)는 교육수준(의무교육과 그 이후 진학 여부)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는데 분석 결과 본인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니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니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배경을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재량(2006)은 KLIPS 자료를 이용해 본인의 교육수준과 가족배경이 니트화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직업이 관리직 일 경우 자녀의 니트화 가능성이 낮게 추정되었다. 본인의 교육수준의 결과는 외국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고학력일수록 니트화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부모의 가구소득의 경우 남재량(2006)은 부모의 교육이나 직업과는 달리 자녀의 니트화에 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으나 분석 결과 부(-)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재량(2006: 149)은 청년 니트 문제가 부유한 가정의 나태한 자녀 문제가 아니며 빈곤의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김종성·이병훈(2012)은 청년 니트 중 '쉬었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할 승산비를 분석하였는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쉬었음에서 구직활동을 할 승산비가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지만 남재량(2006)의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가족배경이 니트화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가족배경 요인은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지, 분가했는지 여부나 부모 중 한 분 하고만 거주하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과 같은 주거 환경 역시 니트화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 환경 중 부모 동거 혹은 분가는 가족의 보호 하에 있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호주의 청년 니트 결정요인을 분석한 Tamesberger & Bacher(2014)는 주거 환경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에 니트화 가능성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니트화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청년들이 니트로 빠질 위험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주목한 Bynner & Parsons(2002)는 삶에 대한 불만족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통제 정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비롯하여 "일에서의 성공은 행운의 문제다"와 같은宿命론적인 태도(fatalistic attitude), 우울증 정도(Malaise Inventory) 등이 니트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宿命론적인 태도나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니트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우울증 정도는 여성의 경우만,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남성의 경우만 니트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직업에 대한 열망 수준(occupational aspiration)이나 교육 기대 수준(educational expectation)에 주목한 Yates, Harris, Sabates & Staff(2011)는 열망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게 추정되었다. Yates, Harris, Sabates & Staff(2011)는 열망 수준이 사회계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해 검증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낮은 사회계급에 열망 수준도 불투명할 경우 니트 가능성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나 훈련 경험 역시 청년들의 니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에 취업 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종성·이병훈(2012)은 '쉬었음'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구직활동을 할 승산비가 높게 추정되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년 니트화에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교육수준, 인지적 능력과 가족배경, 심리적 특성 요인들, 취업이나 훈련 경험들이 중요한 결정요인들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사업 참여가 청년들이 니트가 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몇 차례 청년 니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과 인지적 능력, 가족배경, 심리적 특성, 취업이나 훈련 경험 등이 청년 니트화에 미치는 효과를 KLIPS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변수 및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로 본 조사 문항과 함께 2016년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속 변수는 청년 니트 여부이다. 청년 니트 여부는 15세에서 29세로 취업자도, 재학생도 아니면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5가지 영역(인구학적 변수군, 교육 변수군, 가족배경 변수군, 취업 및 훈련 경험 변수군, 심리특성 변수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인구학적 변수군은 성별과 연령(연령제곱 포함), 지역과 혼인여부로 구분된다. 지역은 서울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 범주는 서울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혼인여부는 미혼인 경우를 기준 범주로 삼았고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는 많지 않아 기혼에 포함하여 미혼 아님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변수군은 교육수준과 대학에서의 경험으로 구성된다. 교육수준은 전체 표본 분석 시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범주로 2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대학원 포함)로 구분하였다. 대학에서의 경험은 전문대 이상의 경우만 독립변수에 포함하였으며 대학 평균 학점과 대학 유형(4년제가 기준범주), 대학 편입여부 등이다. 대학에서의 경험은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서 정보를 가져왔다.

가족배경 변수군은 부모교육, 부모직업, 가구소득(로그값), 부모동거 여부 등이다. 부모교육은 수학년수로 환산하였으며 부의 교육이 있을 경우 사용하고 없을 경우 모의 교육값을 취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부모직업은 6가지의 EGP 계급 범주를 크게 정신노동 직업과 육체노동 직업으로 나누었고 정신노동을 기준범주로 정하였다. 부모 동거 여부는 동거일 경우를 기준범주로 삼았고 사별한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분가에 포함해 동거 아님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전년도의 1년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을 합산해 계산하였으며 로그값을 취하여 변수에 추가하였다. 부모교육과 부모직업은 1차년도 KLIPS 개인용 자료와 2~19차년도 개인용 자료 중 신규 패널진입자 정보를 가져왔다. 가구소득은 19차 KLIPS 가구용 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다.

취업 및 훈련 경험 변수군은 취업 경험 여부, 정부지원 여부, 직업훈련 경험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이다. 취업 경험 여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기준(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정부지원 여부는 청년층 고용대책 중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관 제도,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창업

지원 중 한 가지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취업 경험이나 정부지원 여부는 19차 KLIPS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서 가져왔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19차 KLIPS 개인용 자료에서 가져왔다.

<표 8> 청년 니트 결정요인 분석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KLIPS 2016)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	설명	청년 니트	니트 아님	
인구학적 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0.496(.506)	0.509(.500)
	연령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만 나이	24.23(2.97)	21.2(4.43)
	지역	서울(기준범주)=1, 광역시(서울 제외)=2, 도=3	2.337(.774)	2.413(.751)
가족배경 변수	혼인	미혼=1, 기혼(이혼, 사별 포함)=0	.868(.339)	.960(.197)
	부모교육	부모의 교육년수, 부 없을 경우 모의 값 사용	11.95(2.99)	12.98(2.63)
	부모직업	정신노동(EGP I, II, III)=1, 육체노동=0	.562(.497)	.625(.484)
	가구소득	지난 1년간 근로, 금융, 부동산소득(로그값)	8.287(.759)	8.481(.721)
취업 및 훈련 경험 변수	부모동거여부	부모 동거=1, 분가(사별 포함)=0	.850(.357)	.874(.332)
	취업경험	주당15시간 2개월 이상 취업 경험=1, 없음=0	.182(.386)	.228(.420)
	정부지원	10개 청년고용정책사업 지원 경험=1, 없음=0	.329(.471)	.240(.427)
심리특성 변수	직업훈련경험	직업훈련 받은 경험 있음=1, 없음=0	.018(.131)	.038(.191)
	자격증	자격증 보유=1, 갖고 있지 않음=0	.022(.148)	.015(.121)
	자아존중감	9개 자존감 문항, 합산 후 5점 척도로 환산	3.414(.606)	3.676(.569)
교육 변수	사회적 지지	11개 사회적지지 문항, 합산 후 5점 척도로 환산	3.486(.500)	3.646(.471)
	건강상태	장애나 질병 ¹⁾ 있음=1, 없음=0	.045(.207)	.010(.100)
교육 변수	교육수준	고졸 이하(기준범주)=1, 전문대=2, 4년제 이상=3	2.105(.836)	1.942(.893)
	대학 평균 학점 ²⁾	대학에 다닐 때 통상 평균평점	3.298(.956)	3.529(.963)
	대학 유형 ²⁾	전문대=1, 4년제 이상=0	.407(.492)	.350(.477)
	편입 여부 ²⁾	대학 편입=1, 편입 경험 없음=0	.011(.103)	.030(.170)

주1: 감각기관 장애, 육체적 제약, 활동(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웃이기, 목욕하기, 쇼핑하기, 병원가기, 직업활동)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임.

주2: 전문대 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만 해당되는 변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년차 원자료 및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가족배경변수는 KLIPS 1차년도 원자료 및 2~19차년도 신규자 원자료

마지막으로 심리 특성 변수군은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포함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변수, 건강상태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검사 결과,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793이었으며 제외 시 신뢰도를 높이는 8번과 11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755로 높았고 제외 시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없어 모든 문항을 사용해 변수를 구성하였다. 건강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년 니트 여부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시도하였다. 분석모형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1과 고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2, 그리고 전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3으로 구분하였다. 모델 3은

교육 변수군에 대학 평균 학점 등 대학 경험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3. 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 1부터 살펴보자. 인구학적 변수군 중에서 성별과 지역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년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연령제곱 결과가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그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 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니트가 될 가능성은 0.3(=Exp[-1.342])배나 낮았다. 이 결과는 기혼인 경우 특히 여성은 가사나 육아 때문에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 변수군은 모델 1에서 교육수준 변수만 포함되었는데 고졸 이하에 비해서 전문대 졸은 니트가 될 가능성이 2.8(=Exp[1.039])배나 높았다.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경우 그 가능성은 고졸이하에 비해 1.4(=Exp[.332])배로 높았지만 전문대졸보다 그 정도는 낮았다.

가족배경 변수군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남태량(200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는 니트화 가능성에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곧,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분가한 청년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1.9(=Exp[.640])배나 높았다. 이는 청년들의 자립 환경 조성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으며 청년들이 조기에 분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취업 및 훈련 경험 변수군의 결과를 살펴보자.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2개월을 넘어 지속된 취업 경험은 청년 니트 가능성을 0.3(=Exp[-1.276])배로 낮추며 직업훈련을 경험했을 때도 0.2(=Exp[-1.665])배나 낮춘다.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통해 취업 경험 없이 학교 졸업 후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접근해 취업이나 훈련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니트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이나 훈련을 경험한다면 이후에 니트에서 탈출한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기 개입이라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고용지원기관 간에 졸업자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청년 고용정책사업들이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수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과 고용기관 간의 연계 부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원 대상이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고용대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니트가 될 가능성이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결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9> 청년 니트 결정요인 이항 로짓분석 결과(KLIPS 2016)

		전체(모델1)	고졸 이하(모델2)	전문대 이상(모델3)
인구학적 변수	성별(남=1)	-.188(.143)	-.858(.326)**	-.059(.166)
	연령(만 나이)	3.003(.325)***	5.182(.684)***	2.763(.545)***
	연령제곱	-.059(.007)***	-.109(.015)***	-.053(.011)***
	광역시(서울제외, 서울=1)	-.046(.1961)	.200(.402)	-.155(.231)
	도(서울=1)	.204(.160)	.300(.389)	.199(.182)
가족배경 변수	혼인(미혼=1)	-1.342(.294)***	-.444(.606)	-1.636(.352)***
	부모교육	-.028(.028)	-.124(.061)*	-.001(.033)
	부모직업(정신노동=1)	.044(.149)	.161(.326)	.001(.175)
	가구소득(로그)	-.216(.099)*	-.222(.243)	-.251(.112)*
취업 및 훈련 경험 변수	부모동거여부(동거=1)	.640(.232)**	-.344(.568)	1.052(.281)***
	취업경험(경험=1)	-1.276(.184)***	-2.041(.415)***	-1.297(.215)***
	정부지원(받음=1)	.086(.150)	-.559(.476)	-.269(.164)
	직업훈련경험(경험=1)	-1.665(.558)**	-2.507(1.171)*	-1.551(.632)*
심리특성 변수	자격증 보유(보유=1)	.439(.548)	.003(1.262)	.795(.606)
	자아존중감	-.693(.166)***	-.777(.351)*	-.620(.197)**
	사회적 지지	.035(.192)	-.086(.419)	.121(.223)
	건강상태(질병, 장애=1)	1.217(.674)*	.898(.990)	1.612(.959)*
교육 변수	전문대졸(고졸 이하=1)	1.039(.217)***	-	-
	4년제이상(고졸 이하=1)	.322(.166)*	-	-
	대학 평균 학점	-	-	-.063(.087)
	대학 유형(전문대=1)	-	-	.230(.175)
	편입 여부(편입=1)	-	-	-1.269(.654)*
상수항		-36.581(4.012)	-55.651(7.973)	-33.613(6.687)
Nagelkerke R ²		.333	.575	.221
N		1,945	789	1,144

주: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년차 원자료 및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가족배경 변수는 KLIPS 1차년도 원자료 및 2~19차년도 신규자 원자료

마지막으로 심리특성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자. 개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은 낮게 추정되었으며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10% 수준에서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자아존중감 효과는 니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취업연계만이 아니라 자기이해와 같은 초기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모델 2는 고졸 이하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해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니트가 될 가능성이 0.4(=Exp[-.858])배나 낮았다. 성별로 니트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고졸 이하로만 대상을 좁혔을 때 여성이 니트가 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혼인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모델 3은 전문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것으로 성별 효과는 사라지고 혼인 효과는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혼인을 할 경우 니트가 될 위험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도 고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졸 이하는 부모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대신 전문대 졸 이상은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할 경우 니트가 될 가능성이 2.8($\approx \text{Exp}[1.052]$)배나 높았다. 교육변수군 중에서 대학 학점 평균이나 대학 유형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편입 여부의 경우 10% 수준에서 니트가 될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시사점

OECD는 2010년 이후 회원국들의 청년 니트(NEET) 비율을 비교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으로 제시하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청년 니트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사업으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청년 니트에 관한 학술적 연구들이 등장했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청년 니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청년 니트(NEET)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국내에서 청년 니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니트 정의 이전의 문제로 청년 연령 규정 문제와 니트 관련 실업자를 포함할지 여부, 가사와 육아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지 여부 등이다. 청년 연령 규정은 법적 근거(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상의 청년 연령)와 정책적 목표(성인으로서의 이행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청년 연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대다수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령 정의 등을 고려해 30대 이후를 포함하지 않고 15세에서 29세로 정하였다. 실업자는 니트 개념 상 직장파 학교밖 에 있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통학 중이지 않다면 니트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니트에 포함하였다. 가사와 육아 역시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고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해결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사와 육아의 경우도 니트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청년 니트(NEET)는 “지난 1주간 취업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 재학도 하지 않았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도 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 젊은이”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비교의 경우 비형식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 중인 경우도 청년 니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6년 한국의 청년 니트를 추정해본 결과, 156만 명으로 16.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학원, 직업훈련기관 통학 니트 포함)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청년 니트 비중(18.9%)은 평균(13.9%)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실업상태의 청년 니트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의 청년 니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니트 중에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실업 니트, 구직 니트)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의 청년 니트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해 청년 니트의 유형을 구분해 본 결과, 청년 니트 중 취업준비 중인 경우(①취업준비형)가 45.3%로 가장 높았고 휴식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경우(②휴식포기형)가 27.7%로 나타났으며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③진학준비형)가 7.0%, 가족을 돌보거나 가사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④돌봄가사형)가 5.0%,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⑤질병장애형)가 4.1%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의 내부 이질성은 이들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청년 니트 유형 집단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청년 니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주로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책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훈련 수요가 적거나 훈련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졸자가 많고 공공 일자리는 민간 기업 일자리는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준비가 가능한 시형 형태로 이루어지는 채용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받을 수단을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2019년까지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 상황이다. 대신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인 구직단계에 있는 청년들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정책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016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니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인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분가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없을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 이하는 성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이나 부모 동거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년 니트가 증가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학령기를 벗어날수록 학업이라는 취업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선 취업 후 진학으로 대변되는 독일,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평생학습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원 진학을 포함하여 25-34세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지난 2011년 13.2%에서 2016년 8.4%로 크게 감소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는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이다.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에 있어서 기혼자의 불이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년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1세이고 여성은 29세인 상황이고 가사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30대 이후부터 진행되지만 20대 시기의 결혼 역시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가족배정의 영향은 청년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보여주며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청년이 부모와 동거할수록 니트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분가

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마련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 경험이나 직업훈련 경험은 청년 니트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국처럼 취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안정망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졸 이하의 경우 대졸 이상보다는 니트가 될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니트 위험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고용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요인이 니트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년 니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본의 서포트 스테이션처럼 자기이해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 김기현(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 특징과 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55-6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2015). 한국의 청년 고용 현황과 니트(NEET) 국제비교.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p. 61-7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광석(2015).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5(3).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종성·이병훈(2012).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pp. 235-253.
-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7년 4월호. p. 97-110.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2017). 청년 일자리 실태와 대책.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 청년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회의원 박주민·국회의원 박찬우·(법인) 청년과 미래. pp. 13-32.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pp. 140-157.
- 남재량·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박진희·김두순·이재성(2015). 최근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세미나 자료집.
- 이규용·금재호·안주엽·윤자영·김기현·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2015). 제17차(201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주희진·주효진(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3.
- 채창균·오호영·정재호·남기곤·김기현(2008). 유휴청년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용환(2015). OECD국가의 '청년 니트(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2005~2013년). 한국청소년연구, 26(4), 85-115.
- Benjet, C., Hernandez-Montoya, D., Borges, G., Mendez, E., Medina-Mora, M. E., & Aguilar-Gaxiola, S. (2012). Youth who neither study nor work: mental health, education and employment. *Salud Publica de Mexico*, 54(4), 410-417.
-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89-309.
- Chen, Y. (2011). Once a NEET always a NEET? Experienc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mong youth in a job training programme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

- Freeman, R. (1976). *The Overeducated American*. New York: Academic Press.
- Furlong, A. (2006). Not a very NEET solution: representing problematic labour market transitions among early school-leav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3), 553-569.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A Generation at Risk*.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nui, A. (2005). Why freeter and NEET are misunderstood: recognizing the new precarious conditions of Japanese youth. *Social Work & Society*, 3(2), 244-251.
- OECD (2013). *OECD Skill Outlook 2013*.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 OECD (2015). *OECD Skill Outlook 2015*.
- OECD (2017). *Education at a Glance*.
- Tamesberger, D., & Bacher, J. (2014). NEET youth in Austria: A typology including socio-demography, labour market behaviour and permanence.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239-1259.
-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Yates, S., Harris, A., Sabates, R., & Staff, J. (2011).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fractured transitions: a study of entry into 'NEET' status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513-534.
- 厚生労働省(2004). 平成16年版 労働経済白書.
- 厚生労働省(2015).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昭和四十五年法律第九十八号).